

# 제21차 만국우편연합총회 8.22~9.14 서울서 개최

제21차 만국우편연합총회가 1994.8. 22.~9. 14까지 서울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185개 회원국 및 366개 관련국제기구의 대표, 옵서버 등 약 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체신부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우리나라가 가입한(1990년) 최초의 국제기구 총회이며 한국우정 110년만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역사적인 행사로서, 총회에 참가하는 각국 체신관련장관 등 고위인사와의 접촉을 통하여 통신사업의 협력을 증진하고 우정사업의 선진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편집자주

## UPU는 우편에 관한 UN 전문기구

제21차 만국우편연합총회(약칭 UPU서울총회)가 체신부 주관으로 1994. 8. 22부터 9. 14까지 24일간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개최된다.

이번 서울총회에는 100여명의 각국 체신관련 장·차관을 비롯하여 185개 회원국 및 UN 등 관계 국제기구의 대표, 옵서버, 수행원 등 약 2,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참가국수와 회의기간면에서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중 가장 큰 규모가 될 전망이다.

만국우편연합은 전세계에 우편물 중계의 자유를 보장하고 우편서비스의 개선발전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84년에 창설된 정부간 국제기구이며 우편에 관한 UN 전문기구이다.

5년에 한번씩 열리는 UPU총회는 회원국 정

부 및 우정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국제우편에 관한 UPU의 7개 조약을 개정하고 서명하며 ▲UPU 이사국 선출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선출 ▲UPU 각 기관의 활동보고서 검토, 승인 ▲UPU의 회계결산과 연도별 예산지출 한도액 책정 ▲개발도상국 기술원조 정책과 계획수립 ▲향후 5년간 각 기관이 수행할 과제들을 부여하게 된다.

## 한국우정사상 최초로 개최

서울총회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가입한 국제기구의 총회이며 한국우정 110년만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역사적인 행사로서, 총회 의장과 총회후 5년간(1995~1999) UPU연차활동을 실질적으로 조정감독하는 집행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므로써 우리나라와 한국우정의 국

제적 위상과 역할을 높이게 될 것이다.

특히 서울총회에서는 “UPU와 미래의 우편-경쟁환경에 대비한 범세계적 전략기획”이라는 주제아래 ①21세기에 대비한 UPU의 개편 ②우편의 “보편적 서비스”와 “상업적 접근의 조화” ③경쟁환경에서의 품질관리 ④범세계적 전략과 우편발전의 4개 부제(副題)별 정책토론을 통하여 향후 5년간 21세기를 향한 UPU와 각회원국의 정책지침이 될 “서울우편전략(Seoul Postal Strategy)”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어 UPU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총회에 참석하는 주요국 체신장관, 통신주관청 고위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통신사업협력을 강화하고 국제화시대의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성공적 개최를 위해 치밀한 사전 준비

체신부는 이 총회의 제반 준비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준비사무국 기능으로 '90. 2월에 6명의 인원으로 출발한 「UPU서울총회준비실」을 '92. 7월에 「제21차 만국우편총회준비사무국」으로 확대개편하여 현재 37명이 준비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총회기간중에는 지원요원 및 안내요원을 포함하여 약 250명으로 확대된다. 총회운영과 의사진행을 총괄할 총회의장직수행을 보좌하기 위한 총회의장 보좌팀(6명)과 한국실무대표단도 별도로 구성하여 대비하고 있다.

회의장 시설로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대규모 국제회의 전용시설을 갖춘 컨벤션센터가 없어 한국종합전시장(KOEX)에 회의실(850석 1개, 450석 1개, 70석 3개)과 각국 대표단, UPU 국제사무국 및 한국사무국용의 사무실 290여

개를 조성하고 동시통역실, 인쇄실, 우체국, 사서함, 통신실 등 109여개의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총회 참가자의 등록을 위한 등록카운터와 각종 안내를 위한 안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의무실, 환전소, 여행안내소 등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총회 개최식은 1994. 8. 22(월) 오전에 총회장 대회의실에서 각국 대표, 옵서버, UPU 국제사무국직원, 동반자 및 국내초청인사등 1,40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개최된다.

또한 참가자에게는 회의에서 벗어나 한국의 역사 문화 및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경주로의 지방관광도 실시된다. 지방관광은 주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전세계의 참가자들에게 소개하는 총회공식일정의 하나로서 서울총회에서 개정된 조약의 서명준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동반자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부인 등 동반자(약 450명 예상)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 미풍양속 및 한국적 미를 소개하여 한국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최 첫날밤에 총회주최국으로서 참가자들을 환영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최만찬과 총회 마지막날 밤에 서울총회의 성공적 종료를 축하하고 참가자들의 송별을 고하는 폐회만찬이 한국의 밤 행사로 개최된다.

UPU총회와 병행하여 전세계 우취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PHILAKOREA 1994」세계우표전시회가 94. 8. 16~8. 25일까지 KOEX에서 개최된다.

국제회의는 그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UPU총회는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체신부는 치밀한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10만여 체신가족은 물론 온국민의 관심과 성원이 요망된다.